

엠펙닉스·효광·시스콘로보틱스·데이터투에너지·폴미·시스피아·에이치에이치에스

# 광주시, 전략산업 유망기업 7곳과 투자협약

###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 산업생태계 고도화 생산·연구시설 809억원 신·증설... 일자리 351개 창출

광주시가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유망기업들과 투자협약을 맺어 핵심 전략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업 7개사와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투자기업인 ▲엠펙닉스(광주) ▲효광(광주) ▲시스콘로보틱스(경기) ▲데이터투에너지(전남) ▲폴미(서울) ▲시스피아(대전) ▲에이치에이치에스(울산) 등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기업들은 광주에 총 809억원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351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조세 경감, 보조금 지원 등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엠펙닉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라이다 등의 핵심부품인 초소형(마이크로) 광학렌즈 개발·제조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웨이퍼용 기술'을 확보하는 등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엠펙닉스는 첨단산단 내 신규 부지에 약 550억원 규모의 공장 신축·시설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800만개에서 1억9500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효광은 차량용 매트·선파이버 등 내장재 전문 생산기업으로, 평등산단 내 선파이버 생산라인 2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스콘로보틱스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시장을 개척해 온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으로, AI융복합지구 내 인공지능 기반 물류 솔루션 연구소를 신축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데이터투에너지는 에너지 데이터 기반 전기장비 개발 기업으로,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에 제조·개발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장비 설계·제조·시험평가 아



우르는 통합(윈스톱) 생산 체계를 마련해 전문 기술력 기반의 에너지 장비산업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폴미는 인공지능 기반 숏폼(Short-form) 자동화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AI융복합지구 내 연구소를 설립해 광주 인공지능(AI)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스피아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에 시험평가 연구센터 및 UB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제조 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성능검증·모듈화·시스템화 기술 확보에 나서며, ESS·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에이치에이치에스는 생체신호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산업안전·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AI융복합지구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 조직을 갖춘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선택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투자기업이 광주에서 성장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3년여간 더현대 광주, ㈜광주신세계, ㈜신세계프라퍼티, DH 오도웨어 등 총 37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어 투자금액 약 4조5350억 원, 신규 고용 3만2269명 규모 등의 성과를 이끌었다.

신영길 기자



## 전남도, 무역의 날 수출탑 등 시상

### 현대삼호 40억불탑 등 40곳... 바다명가 등 8곳 수출상 영예

전라남도는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탑 전수식과 전남 수출상 시상식을 지난 17일 호렐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어 전남 수출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와 조성은 광주전남기업협의회 부회장,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등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와 수상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총 40개 기업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HD현대삼호중공업 40억불탑을 수상하며 전남 수출을 이끈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대한조선(9억불탑), 광양알루미늄(2억불탑), 오일허브코리아(1억불탑)를 받았다.

또 2천만불탑에는 ㈜피제이이엔스, 선일물산(1억), 해송식품(1억), 1천만불탑에는 ㈜해농, 농업회사법인 ㈜다솔, ㈜삼영비엔에프, 포스코필라리움솔루션(1억), 조선내화(1억), ㈜제오빌

다, ㈜유일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전남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전남 수출상에는 총 7개 수출기업과 1개 해외 수입기업, 7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대상은 ㈜바다명가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해신과 ㈜삼영비엔에프, 장려상은 (유)하니물산, 매일식품, 어업회사법인 ㈜희망길, 형제수산업어조합법인인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등 수출 유공자 7명에게 수여됐으며,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도 수출 상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돌아갔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남 수출기업이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으로 경쟁력을 지켜냈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 전남도, 조선·해양산업 미래 혁신·상생 발전 다짐

###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 강연서 AX 대응전략 등 공유

전라남도는 19일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제17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혁신과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행사는 전남도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 불산학융합원,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후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승희 영암군수,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손명도 해남부군수, 전경선·손남일·신승철 전남도의원, 한정동 HD현대삼호 부사장, 이석문 대한조선 대표이사 등 지자체·기업·대학·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은 2008년 12월 10일 전남 조선산업의 도약과 상생발전을 선언하며 연매출 10조 원 달성 비전을 선포한 것을 기념해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 1부에선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

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은 자동화 생산설비 개발로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송태영 이원마린 부사장, 지역 기업과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을 주도한 조광희 리노버 대표, 부산신항 스마트 자동화 크레인 납품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박종호 HD현대삼호 책임매니저, 친환경 선박 개발에 힘쓴 최종근 한국메이드 대표이사 등 4명이 받았다.

도지사 표창은 김수영 전남TP조선해양센터 연구원, 김정민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센터장, 위성국 국립목포대학교 책임연구원 등 10명(개인 9명·기관 1곳)에게, 시장·군수 표창은 6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시상에 이어 전남도와 시군, 대학, 연구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전라남도 조선산업 미래혁신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기관들은 새정부 국정기조에 부



합하는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 ▲친환경 전기선박 클러스터 조성 ▲합정 MRO(유지·보수·정비) 전주기 허브 구축 등 미래 조선산업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정보를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현장 경험과 기술이 미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산·학·연 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행사 2부에서는 허철은 한화오션 고문(전 스마트솔루션연구센터장)이 '조선해양 혁신의 방향과 AX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선소의 스마트 혁신 사례와 전남 조선·해양 기업의 AI 기술 적용 방향, AX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미

래 비전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조선·해양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든든한 주역이자, 대한민국 조선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현장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AI·친환경·고부가 산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남을 미래 조선산업의 글로벌 선도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조선산업은 300여 기업, 2만 7천여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목포·영암·해남에 전체 인력의 94% 이상 집중돼 서남권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특히 지역 대표기업인 HD현대삼호는 2025년 3분기까지 1조 4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17.2%를 넘어서는 등 전남 조선산업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임재철 기자

## 농어촌공, 'KRC-AX 전략'으로 농어촌 AI 전환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전환 청사진인 'KRC-AX 전략'을 토대로 농어촌 발전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농어촌공사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법 등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AI 기반 챗봇과 음성봇 서비스를 도

입해 '24시간 고객 응대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보유 데이터를 시계열성·신뢰성·범용성을 갖춘 'AI 친화 데이터'로 전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형 AI 혁신도 추진한다. 'AI으로 그린 미래 농어촌 모습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장비 데이터와 기상 정보를 분석해 홍수·가뭄 등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과학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뉴시스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